

일본의 “풍요로운 축산의 마을 만들기”

사례 3 하나후사(花房)목장의 사례(2000년)



성경일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1. 지역 소개

이 목장은 효고(兵庫)현 加古川市 神野町에 위치하고 있다. 이 목장이 있는 加古川市는 효고현 남부의 세토나이(瀬戸内)해 연안의 거의 정중앙에 있다. 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1급 하천인 加古川가 흐르며 加古川가 운반해 온 토사가 퇴적하여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시내를 JR코우베선, 산요우(山陽)선, 국도 2 선, 국도2호선의 加古川바이패스, 산요우 자동차도로가 동서로 관통하며, JR加古川선이 북쪽으로 펼쳐져 있다. 시의 남부에 있는 해안선은 공업지대이고, 중심부는 상업지대와 주택지로 되어 있으며, 북부는 농촌지대로 되어 있다. 교통편이 양호하여 코우베나 오오사카 방면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기후는 세토나이 해 기후에 속하여 온난하고 강수량은 적다. 대부분의 농업은 겸업농가로 되어 있으며 주요농작물로서는 벼, 밀, 콩, 파, 야채, 무화과 등이 있다. 축산에서는 육우사육이 많으며, 시내에는 주요

한 식육시장이 있으며, 처리 후 코우베비프(beef)로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낙농가 중에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우수한 농가가 있다.

2. 지역의 농업 개요

인구 · 세대수

(단위 : 인, 호)

구분 년도	인 구			세 대 주				
	총인구	농업		총인구	농 가 수			
		인구	농업취업인구		총호수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1998	265,866	24,027	6,055	89,059	5,762	756	257	4,749

경지면적 등

(단위 : ha)

구분 년도	총토지면적	경 지				채초방목지	기타	
		논	밭	과수지	목초지			
1998	13,849	2,770	2,660	44	48	16	-	110

가축의 사양현황

(단위 : 호, 두, 수)

구분 \ 년도	젖소			육우			돼지			닭		
	호수	1호당 사육두수	총사양두수	호수	1호당 사육두수	총사양두수	호수	1호당 사육두수	총사양두수	호수	1호당 사육두수	총사양두수
1998	10	43	431	13	136	1,770	2	100	203	6	1,500	9,100

주요 농작물의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구분 \ 년도	벼		밀	
	작부호수	작부면적	작부호수	작부면적
1998	5,762	1,390	841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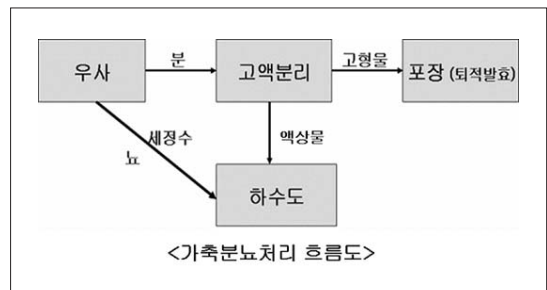
3. 하나후사 목장의 경영개요

노동력	젖 소			경산우 1두당 산유량
	총 사양두수	경 산 우	송아지, 육성우 (육성우는 위탁육성)	
본인 : 낙농전반 모, 숙모 : 우사내작업 처 : 경리, 꽃 가꾸기 헬퍼 : 2~3인/월	49	32	17	9,970

4. 가축배설물의 처리 실태

우사가 주택지, 그것도 항상 사람의 왕래가 많은 역(驛) 앞에 있어 우사 주변이나 내부의 청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사에는 환기팬을 여러 개 설치하여 항상 우사 내를 건조하게 하며 냄새가 차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사로부터 나오는 분은 고액분리기에 의하여 고형물과 액상물로 나누어 액상물은 노, 세척수 등과 함께 하수도로 방류되며 고형물은 매일 자기 소유의 포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쌓아서 퇴비화를 하고 있다. 고액분리로 고형물의 퇴비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악

취나 충해의 발생 등에 대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다. 하수도 이용요금은 수도사용료에 의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우물물에도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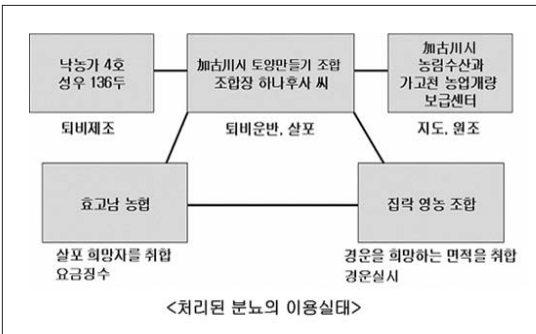


우사가주택가에 근접해 있다.

5. 처리 가축배설물의 이용 실태

시내에 있는 4개의 낙농가와 함께 “加古川시 토양(흙)만들기조합”을 1991년에 결성하여 시내의 집락(集落)영농조합과 연대하여 포장에 살포하고 있다. 현재, 4개의 집락 33ha에 살포하고 있으며, 퇴비살포량은 10a당 3톤이다. 살포시에는 영농조합의 농기계작업 담당자(오퍼레이터)와 공동으로 작업하며 살포 후 즉시 경운하여 퇴비가 흙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효고 남농협과 시의 협력을 얻고 있으며, 농협은 살포희망집락, 살포면적 등을 취합하고 요금을 징수하며, 시는 퇴비이용촉진을 위하여 토양(흙)만들기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다. 농기계는 낙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 사용하여 살포비



용을 절감하고 있다. 퇴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원만의 퇴비로는 부족하여 시내의 육우농가의 퇴비를 이용하고 있다.

6. 현재의 가축배설물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장이 시내 중심에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포장은 적으며, 이전에 임대를 받아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분을 야적하여 포장 주변의 주민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곤 했다. 오줌이나 젖소 특유의 수분이 많은 분의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또한 가축배설물뿐만 아니라 우사로부터 나오는 착유기 등의 세척수 처리도 문제였다. 따라서 시의 농림수산과의 협력을 받아 하수도로 방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고액분리에 의한 처리를 개시하므로써 수분처리는 해결할 수 있었다.

나머지 고형물에 대해서는 포장정비를 계기로 집락영농조합을 조직하여, 맥류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작황을 얻기 위한 토양개량재로서 퇴비 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퇴비를 살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加古川동부낙농조합의 유지 4명과 함께 토양(흙)만들기조합을 결성, 영농조합과의 연대에 의한 퇴비살포를 개시하였다.

7. 지역환경과의 조화

목장이 역 앞에 있어 항상 사람의 왕래가 많고 인근의 어린이들도 자주 우사를 방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사주변에는 사용하지 않는 우사통이나 갯목, 벽돌 등을 사용하여 화단을 설치하여 항상 꽃을 심고 목장의 간판을 설치하는 등 목가적인 이미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내 공원녹화협회의 협력을 받아 “꽃 가꾸기 운동”의 모델로서 우사에 인접하는 포장(15a)에는 유채, 해바라기, 코



스모스 등을 연중 재배하고 있으며, 역 앞의 경관 만들기는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휴식장소로서 애용되고 있다.

8. 풍요로운 축산의 마을로서의 활동

소비자, 지역주민에 대하여 자신의 우사를, 낙농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장소로서 생각하여, 우사내외의 환경미화에 힘쓰고 있다. 시의 경관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퇴비만들기의 지도나 모델포장을 설치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장소 만들기에에도 협력하고 있다.

加古川시의 초등학교 5학년생의 사회과목 교재로서 비디오 “젖소와 함께”라는 것을 촬영하였으며 加古川시 능북(陵北)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매년 하는 소와 관련하는 사생대회에 협력하여 어린이들이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시와 효고 남농협에서는 브랜드쌀의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유기물 시용에 의한 토양만들기와 저농약에 의한 안전하고 양질의 쌀을 시내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벼심기, 수확체험 등의 교류회를 개최하므로써 소비자에게 PR과 생산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쌀 생산에 핵심인 유기물시용은 加古川시 토양만

들기조합이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9. 특기사항

하나후사목장이 공원녹화협회와 하고 있는 “꽃가득 운동”은 전작(轉作)면적의 확대에 따른 휴경농지 문제를 해소하는 모델사례로도 되어 있다. 특히 경작 의욕저하가 심한 농지에서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이 재배되어 휴경지 문제, 환경악화의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하나후사목장은 인근의 낙농가와 함께 “맛 있는 우유생산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량제한의 저온살균우유의 원료



꽃이가득한 우사



목장 주위의 밭에 해바라기 만밭.기차가 지나가고 있다.

를 공급하고 있다. 우유팩에는 낙농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0. 앞으로의 목표 및 과제

하나후사씨는 현재 인근 3개의 시(市)와 정(町)의 낙농가로 결성되어 있는 “東播南 낙농헬퍼이용조합”의 조합장을 하고 있으며 헬퍼이용을 통한 여유있는 낙농경영과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만들기에 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낙농가들은 각각 퇴비살포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과의 정보교환, 연대를 강화하여 퇴비 유통에 대하여도 폭넓게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여기에 목장이 시내에 있다는 입지를 충분히 살려 자가산 우유를 사용한 아이스크림이나 치즈 등의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므로써 소비자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우유소비에 공헌하려고 구상하고 있다.

11. 심사위원들의 코멘트, 인상

- 1) 도시근교에서 경종농가는 물론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는 낙농경영

加古川시는 효고현 남부의 세토나이해 연안에 있으며 공업지대, 상업지대, 주택지가 높은 밀도로 분포하는 지대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조건에 있으므로 농업은 벼, 콩, 야채 등이며, 주로 겸업농가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축산은 고우베 비프의 명성이 있어 육우경영이 비교적 많다. 낙농은 육우경영에 비해 적지만, 지역의 우유공급원으로서 기술력이 높은 농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 2) 논 전작을 지원하는 加古川시 토양(흙)만들기 하나후사목장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加古川시 토양만들기조합은 시의 농림수산과 및 농업



역주변에 있는 목장의 꽃밭

보급센터의 지도와 효고 남농협 of 협력을 받아 시내의 집락영농조합과 퇴비의 이용에 대하여 연대,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다. 퇴비살포 희망농가의 취합과 요금징수를 농협에 의뢰하고, 퇴비살포는 낙농가 소유의 작업기를 사용하여 조합이 실시하며, 살포직후에 경운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집락영농조합의 작업담당자(오퍼레이터)와 연대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퇴비의 주요한 이용은 벼수확 후 후작을 위하여 10a 당 3톤을 살포하고 경운 후 맥류를 재배한다. 퇴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시내의 육우농가의 퇴비도 이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집단전작을 진행하고 있는 맥류재배나 콩재배 영농조직과 긴밀하게 연대하여 포장에 환원하고 있어 지역의 자원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목장의 조사료는 전면적으로 수입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전작포장에서의 사료 재배를 실시하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3) 소비자가 낙농을 가까이 하도록 소개하는 노력 시내 한가운데서의 낙농이며 소비자가 바로 가까이 있어 축사주변 환경의 정비, 인근의 낙농가

와 공동으로 우유팩에 각 목장의 이름을 인쇄한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어린이에게 가축 체험을 시키거나 소비자와 지역주민에게 우사를 낙농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개성하는 장소로서 생각하고 소비자와 축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공원 등에서 나오는 간벌재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배설물에 의한 폐기물의 자원화 방향을 소비자와 손을 잡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축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하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우유통을 활용한 화단



모범적인 낙농 · 육우목장의 사례를 찾습니다

협회 홍보실에서는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목장을 월간 「낙농육우」지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아래에 해당되는 목장의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협회 홍보실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퇴비를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농업의 활성화를 선도하는 목장
 - 자급 조사료 기반의 확충
 - 경종농가에 퇴·액비공급으로 작황개선
-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목장
- 목장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목장
- 친환경 유기낙농 기술을 준비 중인 목장
 - 유기적 질병·방역 관리
 - 유기적 사료 배합, 첨가제 활용
- 친환경적 축사환경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목장

〈연락〉 전화 : 02-588-7055~6 / 팩스 : 02-584-5144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 기념식재 행사 개

협회에서는 지난 4월 5일(수)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 기념식재 행사를 충남 논산소재 성동목장(협회 이용우 충남도지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김종상 충남도청 사무관, 정동수 대전낙협조합장, 협회 정창영 감사, 김영남 논산낙우회장의 낙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목장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 실천방안으로 매년 4월 5일을 목장에 나무 심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재, 꽃 심기, 논산지역 낙농가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농가 자율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재 순서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직접 나무와 꽃을 심는 등 정부와 생산자 관계자 모두가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승호 회장은 전농가가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농가 지도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07년부터는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 과 함께 ‘꽃가득 캠페인’ 을 전개하여 참여농가에 꽃씨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